

## 연중 제27주일

2024. 10. 6 (나해) 제2334호

함께 걸어나는  
하느님 백성



# 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르 10,15

병자 영성체 가방

1940년대  
사직 전, 가족  
23,5×21,0cm  
광주기독교박물관

**입 당 송**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제 1 독 서** 창세 2,18-24

**제 2 독 서** 히브 2,9-11

**화 답 송**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주 님 은 한 평 생 모 든 날 에 복 을 내 리 시 리 라

**복음환호송**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복 음** 마르 10,2-16〈또는 10,2-12〉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 변화하는 시대 속 불변하는 진리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의 모습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등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배경과 과정이 다른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익숙지 않은 현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시련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혼인이 단순한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성스러운 관계임을 강조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 이 말씀은 혼인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서는 혼인을 남녀가 하나 되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마르 10,8). 이는 혼인이 단순히 합법적인 계약을 넘어,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이혼을 단호히 금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마르

10,11). 이는 이혼이 단순히 개인적·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법을 깨뜨리는 죄악임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혼인의 단일성에 대해, 사랑의 시작인 가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혼인은 단순한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신 성스러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혼인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혼인은 결혼 예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는 과정임을 기억합시다.

남편, 아내, 자녀들은 혼인 성사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잘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하느님께 받은 서로를 위한 헌신과 사랑의 공동체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이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며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조용한 베드로 신부  
진도 본당



# 하느님 백성의 대화와 광주대교구의 교회론



광주대교구는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 대화를 광주대교구에 교회론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회란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이고, 교회론이란 그 공동체의 사명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만들어 가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교구는 누가 앞에서 끌고 다른 이들은 뒤에서 따라가는 수동적 공동체가 아니라, 모

두가 함께 참여하고 대화하며 토론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는 능동적 참여형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도구이다. 대화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나 자신과 상대방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소통의 도구이다. 대화를 통해서 상호 간의 생각을 나누고, 이를 통해서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도와준다.

대화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고, 끝까지 경청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서 경청이란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공감해 주고 그 의견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함께 식별하며 그것을 함께 실천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시노달리파스 대화의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참여와 경청 그리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제임스 티소트(James Tissot, 1836-1902) 작

식별의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셨다. 참여와 경청은 모든 공동체의 대화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통 요소이지만, 특히 식별의 과정은 교회 안의 대화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느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러기에 우리는 대화의 과정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모두가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민주주의보다 더 지난至難하고 힘든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토론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동반하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시노드적인) 과정이다.

마음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모인다면 주님께서도 거기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마태 18,20 참조).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사목국장



## 일그러진 돈줄 내기

요즘 새로 만들어 쓰는 말에 ‘돈줄’이 있다. 아주 나쁜 짓거리에 ‘혼줄’이 나듯, 크고 작은 선한 양심의 주인공에게 저마다 정성껏 치하와 격려를 경제적인 보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만 해도 심심찮게 그런 사례가 들린다. 배달이 늦어 취소한 음식을 무료로 보내준 대게집 사장님. 가수 김장훈 씨가 전해준 소박한 양심에 많은 이들이 돈줄을 내 5일간 매출 1500만 원을 기록했단다.

뿐만 아니다. 어려운 형편의 초등학생들 아침을 책임진 빵식이 아재 김쌍식 씨나 기름값 내릴 테니 조금씩만 주유하라 했던 양심 주유소, 이른바 티메프 사태 속에서도 고객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물품 배송 약속을 지켰던 여러 업체들, 쌀과자 포장지에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새겼고 그걸 지우면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일본 제안을 거절한 장성의 쌀과자 업체 등등.

정의가 사라지고 얄팍한 이해타산이 앞서는 세태 속에서도 자기 양심을 지키고 올바른 도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와 공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실망스러운 세태 속에서 생존을 위한, 혹은 단순히 안위와 편의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 용기가 없는 이들은 이러한 소박한 양심에 더 크게 감동을 받는 듯하다.

그런데 모든 돈줄내기가 아름답고 소박하게나마 감동적이지는 않은 듯하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한 뒤 구속된 한 전공의를 상대로 돈줄내는 일이 언론에 보도됐다. 옳지 않은 일에 저항한 그의 행동을 지지하고, 투쟁의 전선에 선 이들이 돈벼락을 맞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에 관련된, 정부의 무모하고 억압적인 정책 추진과 의료계의 저항과 반발의 정당성, 올바른 의료 개혁의 방향성 등에 대한 열띤 사회적 논의 등을 떠올리기가 어렵다. 오히려 (극히 일부 의사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무책임한 언론들에 의해 침소봉대된 정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더 절박한 지경에 몰려야 비로소 의사들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라는 식의 발언들을 떠올리게 된다.

다양성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상황 판단에 바탕을 둔 다양한 의견들이 대화와 경청과 식별을 통해 협의와 타협에 이르게 되는 것은 너무나 원론적이지만 사실 그것이 마땅하다. 작금의 상황이 그런 건전한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서로 거친 언사와 행동에 이르게 된다는 것도 최소한의 이해는 된다. 그래서 십시일반 도움으로 버거운 싸움을 하는 동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 역시 누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통해 드러나는, 같은 업종의 동료들에게까지 향한 적대감과 배제와 비난의 행위가 과연 모두가 지지해도 좋은 일일까? 억압적 정부에 힘들어하는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빚어낸 낙인찍기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억압은 아닐지. 이런 생각이 필자만의 무지한 편견은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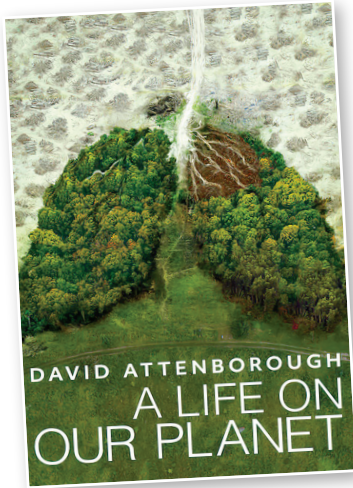
박영호 안드레아  
가톨릭신문 편집국장



\*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

## 데이비드 애튼버러 -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

David Attenborough: A Life on Our Planet, 2020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창세 1,28).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방송인인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1950년대부터 BBC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당

시에 알려지지 않은 오지를 찾아가 한 번도 화면에 담기지 않았던 동식물과 자연의 모습을 촬영해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최근에는 「아름다운 바다」, 「살아있는 지구」, 「프로즌 플래닛」 등 여러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제작과 해설을 맡았다.

2020년 제작된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는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인 체르노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데이비드가 실제로 체험한 100년의 환경 변화를 시간순으로 보여준다. 홀로세(신생대 제4기의 마지막 시기, 현재의 시대)를 맞이하여 안정적인 기후가 유지되면서 생명의 다양성이 극대화되었던 때에 인류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된다. 이때 인류는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다는 착각을 했고, 화석연료 사용과 함께 생활 개선을 위해 마구잡이로 동물을 남획하고, 숲을 없애고 농작물을 심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대기 중 탄소 농도도 증가하면서, 남획과 숲의 파괴로 말미암아 생물다양성 감소와 멸종이 가속화된다.

다큐멘터리에서 그가 보여주는 지구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지만, 그의 염려처럼 그 아름다움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져 가고 있다. 현재와 같은 기후 위기가 계속될 때 어떤 비극적인 미래가 도래할지를 보여주는

장면은 인류에 대한 강한 경고로 보인다.

그는 다큐멘터리 마지막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교육을 통해 생활 수준을 향상해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야 하며,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어획 구역 제한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며,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권장하며, 삼림파괴를 중단하고 숲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올여름 어느 때보다 길었던 열대야와 해수 온도 상승, 기습적 폭우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생태적 실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눈앞에 닥친 기후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한다면 지금보다도 극한 기상이변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연과 동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그 권한은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강조하셨던 생태적 회심이 지금 여기에 필요하다. 개인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위기의 시대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해 본다.

조용준 니콜라오 신부  
성바오로 수도회,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장

## 교구장 동정

- 10월 6일 견진, 사목방문(장성)  
 10월 8일 견진(장흥교도소)  
 10월 9일 제8차 하느님 백성의 대화  
 (광주가톨릭청소년센터)  
 10월 10일 제3회 새로운 성경공부  
 학생축제 개막미사(교구청)  
 재무평의회(교구청)  
 10월 11일 광주가톨릭박물관 특별기획전시 개막식  
 10월 12일 사목평의회(교구청)  
 비움나눔 콘서트 및 개막식(교구청)  
 10월 13일 견진(봉선동)



## 인권평화재단

##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일시 : 10.7(월) 10:00  
 장소 : 교구청(쌍촌동) 경당  
 문의 : 062) 234-2737

## 성소국

## 교구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 10.12(토) 10:30  
 장소 : 교구청(쌍촌동) 성당  
 문의 : 062) 380-2280~1

## 사목국

## 제11회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일시 : 10.19(토) 10:00~16:00  
 코스 : 거금도후계소 → 거금대교  
 → 소록도1번지성당 → 소록도병원  
 → 중앙공원 → 소록도2번지 성당  
 → 소록도1번지성당(총 8km)  
 집결 : 거금도후계소(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로 720)  
 참가비 : 5천 원(도시락 개별 준비)  
 문의 : 평신도사도직협의회 062) 236-3004

## 임신부 및 태아 축복 미사

일시 : 10.26(토) 14:30~17:30  
 장소 : 교구청 103호 강의실  
 주례 : 교구장 옥현진 대주교  
 문의 : 본당 사무실 및 큐알코드 신청



##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pc.com FM 99.9 MHz FM 99.5 MHz

YouTube 페이스북 광주가톨릭평화방송 OnAir

##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재방송) 16:50~17:00]

10.7(월)-9(수) 박재홍 신부(미평동 본당) / 10.10(목)-12(토) 정성중 신부(산정동 준대성전 고해성사 전담)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 프로그램)' 매주 화요일 코너 - '행복한 동행' [10.8(화) 17:42~17:52]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위원과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 정세 등을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으로,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그들이 우리의 동포라는 인식을 나뉘는 시간입니다.

## 피아트도미니 소년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한국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을 기리며'



일시 : 11.17(주일) 16:00 / 장소 : 산정동 준대성전(목포)  
 문의 : 062) 231-7700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교구민들과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14:00, 종교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17:00, 시사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월말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005(100원 유료), 뽕톡(무료)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방송 청취 소감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성바오로 여행사(문의 : 062) 381-9004 /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튀르키예, 그리스(11월) 1.13(월)-23(목) / 성모님 발현지(루르드, 파티마, 바르셀로나(12월) 3.11(화)-22(토)

## 교구청 직원채용 공고(1명)

자격 : 세례 3년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진행 경험자  
 악기와 음향기기 관련 운용 가능한 자  
 문서편집 및 원고교정 가능한 자  
 조건 :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 홈페이지(www.gjccatholic.or.kr) → 자료  
 → 문서자료 → '입사' 검색  
 (본당신부님 추천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기타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접수 : 10.10(목) 18:00까지  
 제출 : 이메일(gjsamu@hanmail.net) 혹은 우편접수  
 우편 보내는 곳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사무처 인사담당  
 문의 : 062) 380-2801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gclei.kr 062) 380-2210~4

갤러리 ㅊ 380-2213 | 책더하기사랑도서관 380-2218

## 제7회 비움나눔 페스티벌 행사 안내

## 어린이그리기대회

- 일시 및 장소 : 10.12(토) 13:00~18:00 / 교구청(쌍촌동) 일대 · 대상 : 초등학교
- 주제 : Be Still 고요히 머물며(시편 37,7) / 나만의 휴식, 편안한 우리(나, 가족, 친구 등), 기다림
- 그림크기 : 8절 도화지(당일배부) · 준비물 : 그림도구, 야외옷자리
- 신청마감 : 10.10(목) 18:00까지 · 참가비 : 무료
- 신청방법 : E-mail(kccei@hanmail.net) 접수 / Fax 062) 380-2209 송부 / 당일 접수 가능
- ※ 어린이그리기대회 신청서 다운로드 : www.beuum.kr 프로그램참여 - 어린이그리기대회 클릭
- '버려진 그림책으로 팝업북 만들기' 체험
- 정크 아티스트 안전화 작가 진행 / 어린이그리기대회 당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
- ※ 어린이그리기대회 체험부스 운영 : 생명존중캠페인, 지구촌인권평화, 바오로가게, 먹거리 점빵, 전통 놀이 등

## 개막식 &amp; 비움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10.12(토) 19:00 / 성당
- 출연진 : FIAT DOMINI 소년합창단, 광주가톨릭솔리스트앙상블, 피아트오케스트라
- 문의 : 비움나눔페스티벌 운영위원회 062) 380-2211~2212

## 교구 선교(볼리비아) 후원 안내

천주교 광주대교구 선교 후원 계좌  
 광주은행 170-127-003379  
 (재)광주구천주교(선교)  
 문의 : 062) 380-2821



사회복지법인 Caritas GWANGJU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 노숙인돌봄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시간 : 주1회 월-금 평일(15:00~17:00)  
 또는 평일(16:00~18:00)  
 봉사장소 : 호남동 성당  
 봉사내용 : 노숙인 도시락 조리 및 포장, 배분  
 문의 : 062) 510-2893

## 기관·단체

### 포콜라레 월레모임(줌)에 초대합니다

일시 : 10.13(주일) 15:00(누구나)  
Zoom ID : 876 0662 7700, 암호 : 123456  
문의 : 포콜라레 062) 222-2800

### 소화자매원 후원자 및 직원 미사

일시 : 10.16(수) 14:00  
장소 : 소화자매원 지하 성당  
문의 : 062) 675-4023

### 역사서 통독피정

기간 : 10.28(월) 10:00-30(수) 16:00  
장소 : 매월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  
문의 : 010-5604-6257

### 수험생 부모님을 위한 피정

일시 : 11.14(목) 10:30-14:30  
장소 :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문의 : 062) 571-8004  
※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 10.19(토)-20(주일), 11.2(토)-3(주일)  
3박 4일 : 10.24(목)-27(주일), 11.28(목)-12.1(주일)  
8박 9일 : 10.7(월)-15(화), 11.14(목)-22(금)  
40일 : 12.14(토)-25.1.22(수)  
장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 010-4906-5722, 031) 953-6932

### 푸른섬, 제주섬 이야기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말씀여행**  
기간 : 11.1(금)-3(주일), 11.15(금)-17(주일)  
대상 : 개인, 단체(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장소 : 성이시돌 피정의집(통합사목센터)  
접수 : 010-9670-9775, 010-2231-2074

###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 중)  
자연순례 : 11.1(금)-3(주일)  
11.7(목)-9(토), 11.21(목)-23(토)

추자도 포함 : 11.16(토)-19(화)  
연말연시(한라산) : 12.29(주일)-25.1.1(수)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 02) 773-1455, 064) 796-4182

###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생태순례 : 12.7(토)-9(월)  
연말연시(한라산 포함) : 12.30(월)-25.1.2(목)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 11.3(주일)-6(수),  
11.18(월)-21(목), 11.24(주일)-27(수)  
문의 : 02) 773-1463, 064) 756-6009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교구 쉼기도

일시 : 매주 월 09:30  
장소 : 교구청(쌍촌동) 3층 경당  
문의 : 총무 010-3162-0112

## 성가대 지휘 전문가과정 개설

대상 : 본당 성가대 지휘에 관심 있는 사람  
기간 : 연간 24주간 3년 과정(토 09:00-13:00)  
장소 :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입학시험 : 2025.2.15(토)  
등록금 : 1년 290만 원  
문의 : 음악원 051) 519-0475

### 2025년 살레시오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 : 특별전형 남 10명, 여 10명  
일반전형 남 32명, 여 32명  
접수 : 특별전형 11.7(목)-11(월) 15:00  
일반전형 11.14(목)-18(월) 15:00  
문의 : 062) 227-1292

### 성령기도회(안수)

일시 : 매주 목 19:00-22:30  
장소 : 교구청(쌍촌동) 성당  
문의 : 성령쇄신봉사회 062) 382-6002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장소 : 도쿄, 북해도, 나가사키, 오사카, 아키타  
순례비 : 3박 4일 120만 원(월 1회)  
문의 : 010-3645-9028

### 제주운전기사회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 010-4566-6476

### 엠마우스산업 직원(조리원) 채용

업무 : 구내식당 조리  
자격 : 조리사 자격증(필수)  
모집 : 채용시까지(홈페이지 참조)  
문의 : 062) 951-6920

### 장성 프란치스코의 집 물리치료사 채용

모집 : 채용시까지(홈페이지 참조)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문의 : 사무국장 061) 390-9600

## 선교·수도회

### 영원한 도움의 성모 구일기도(노베나)

10.8(화) 13:30 목포 가톨릭회관 2층  
10.16(수) 13:30 교구청(쌍촌동) 3층 경당  
문의 : 이종훈 마카리오 010-2809-4628

### 예수고난회 위령기도, 미사

일시 : 11.2(토)10:30-13:00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문의 : 062) 571-5004  
※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 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 382-2214, 010-7159-9674

## 본 당

### 월산동 성당 유급 지휘자 모집

자격 : 경력자 우대  
문의 : 062) 363-3004

## 상설 고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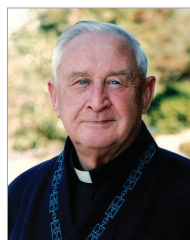
### << 교구청 성당

- 일시 : 화요일 13:30-15:00  
금요일 18:30-20:00
- 장소 : 교구청 성당 고해실
- 성사집전
  - 화요일 : 교구 내 수도회 소속 신부님
  - 금요일 : 골롬반회 신부님
- 문의 : 062) 380-2210~5

### << 산정동 준대성전

- 일시 : 수요일-주일 10:00-12:00  
화요일-토요일 14:00-16:00  
(월요일 휴무)
- 장소 : 산정동 준대성전 고해실(2층)
- 문의 : 061) 274-1004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갈 굴리엘모 신부 선종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갈 굴리엘모 신부님(향년 95세)께서 9월 22일(주일)에 선종하셨습니다.

1954년 10월 4일 사제품을 받은 신부님은 1955년 4월에 한국에 파견된 이후 퇴임 때까지 함평, 산정동, 원동, 화순, 해남, 영광, 영암, 영산포, 광천동, 장흥 본당, 사거리 준본당 등 광주대교구 내 여러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해오셨으며, 퇴임 후에는 장성 성진 공소(사거리 본당)에 거주하시면서 교구와 연대하며 지내오셨습니다.

교구청 성당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교구를 위해 헌신해 오신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9월 25일(수) 오전 10시 염주동 성당에서 최창무 대주교님 주례의 장례미사가 봉헌되었으며, 고인의 시신은 담양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미사와 기도 중에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